

완벽한 방화시설, 철저한 점검

도움말 : 조명연 호텔롯데 방화과장



우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경영의 잘못으로 망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화재는 예고없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화재예방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 말은 호텔롯데 경영진이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확고하고도 강력한 경영지침의 한 귀절이다.

현재 완벽한 방화시설과 철저한 점검으로 화재예방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 기업과 건물은 많이 있다.

그 중에서도 우선 소문난 호텔롯데의 방화실태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 완벽한 시설

지상 37층, 지하3층, 연건평 3만3천7백47평인 국내 최대의 호텔 롯데가 자리잡은 곳은 서울 중구 소공동 1번지. 이 건물은 1981년2월10일자로 준공검사를 받아 호텔 영업을 시작했다.

그동안 호텔 롯데에서는 규모가 작은 화재가 몇차례 발생하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즉시 진화되어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

이러한 화재사고의 과정을 거치면서 호텔 롯데는 이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방화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대부분 관련법규의 기준시설보다 초과될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

소방시설현황

종류	종 류	기준	현시설	과부족	비고
소화설비	분말소화기	360	720	+ 360	
	대형소화기	4	6	+ 2	
	HALON (간이)	0	1,312	+1,312	
	옥내소화전	0	27	+ 27	
	스프링크라	47	47	0	
	포소화설비	120	120	0	
경보설비	HALON GAS	11(77)	11(77)	0	
	자동화재탐지설비	264	296	+ 32	
	전기화재경보기	0	56	+ 56	
	자동화재속보설비	1	1	0	
	비상경보설비	270	270	0	
	비상방송설비	1	1	0	
피난설비	가스누설경보기	80	80	0	
	구조대	0	4	+ 4	
	완강기	0	2	+ 2	
	출사다리	0	4	+ 4	
	구조낭	0	3	+ 3	
	피난 GONDOLA	0	2	+ 2	
	유도등 (피난구)	551	551	0	
유도등 (통로)	382	382	0		
소화용수설비	방연 MASK	0	1,930	1,930	
	저수조	3	3	0	
	채수설비	0	3	+ 3	
소화활동상필요한설비	지하수	200t	4,000t	+3,800t	
	배연구	17	113	+ 96	
	연결송수관	1	3	+ 2	
	비상콘센트	1	3	+ 2	
	방열복	5	8	+ 3	
	드렌처	4	4	0	
공기호흡기	5	10	+ 5		

■ 철저한 관리

이렇게 완벽한 시설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역시 그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호텔 롯데는 현재 방화과를 별도로 두고 있으며 이 방화과는 시설점검, 교육훈련, 작업통제, 행정처리 업무 외에 비상관제실 운영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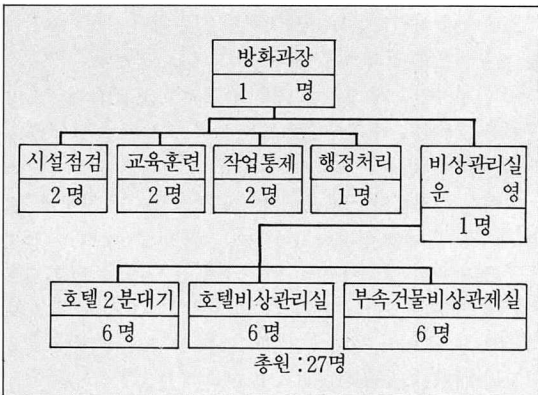
비상관제실 산하에는 다시 호텔 2분대기조, 호텔비상관제실, 부속건물 비상관제실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모든 업무는 27명의 방화요원에 의해 운영되어 이들이 사실상 호텔 롯데의 방화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셈이다.

방화요원 중에는 전직 소방관 출신이 14명에 이르고 있으며, 훌륭한 시설에 걸맞게 관리요원의 전문화까지 도모하고 있어 그야말로 완벽하고 조직적인 관리체제임을 엿볼 수 있다.

국내 최대의 호텔건물이 어떻게 1개과에 의해서 그토록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이다.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해서도 분야별 업무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방화과 편성표



방화과의 주요업무는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진다. 첫째가 화재예방 및 점검, 둘째는 소방시설의 관리유지 및 점검, 셋째 방화교육 및 소방훈련, 넷째 화기취급지도 및 단속, 다섯째가 작업통제 및 안전관리로 되어 있다.

이러한 기본업무와 함께 2분대기조는 건물 전층의 어느 곳에서든지 일단 비상상태(화재등)가 발생하면 2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상황을 비상관제실에 통보하고 화재의 초기진화와 연소방지 및 인명구조등 비상조치를 취하게 된다.

동시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비상대기조를 지휘하여 진화활동을 계속하도록 임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비상시에 이에 대처하는 속도가 빠를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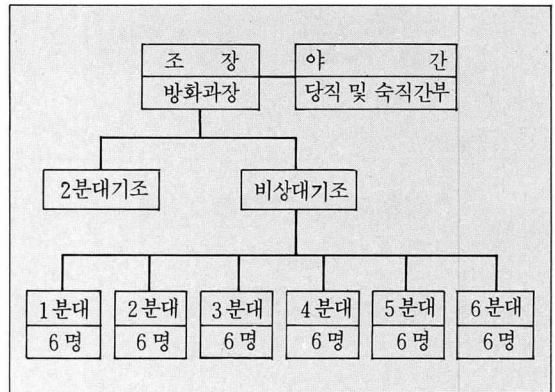
이들 2분대기조는 평소에도 꾸준히 실전에 대비한 교육과 훈련을 쌓아가고 있다. 이들은 지하층에서 출발하여 37층까지 오르는데 불과 1분40초 밖에 걸리지 않을만큼 잘 숙련되어 있다.

유사시 2분대기조의 지휘를 받게 되는 비상대기조는 총 36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보통 때는 소속부서에서 주어진 업무를 처리한다.

그러나 비상이 걸리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활동을 벌이게 된다.

비상대기조는 평소에도 방수복 등의 소화장비를 항상 가방속에 휴대하도록 하고 있다.

비상대기조 편성표



이러한 특별조직과는 약간 다른 시설점검조의 경우 건물의 외관점검을 월1회, 기능점검은 6개월에 1회, 정밀점검은 연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또 필요할 때에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전기등 관련설비에 대한 정밀점검도 하고 있다.

한편 작업통제조는 호텔의 각종 작업시에 발생할 수도 있는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모든 작업의 통제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내의 모든 작업은 일단 방화과의 사전통제등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은 작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작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방화과에서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화재



‘방화 의식 고취를 위해 각 부서대항 소방경진대회를 실시,’

예방과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철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발주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필요한 각종 소화장비를 갖추고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호텔 롯데처럼 규모가 큰 건물에는 종업원 수만 해도 엄청나다.

더우기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으며 각종 화기사용시설과 위험물질의 취급량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화재의 위험도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호텔의 방화교육과 소방훈련은 백번 강조되어도 부족할 것이다.

호텔 롯데는 바로 이러한 중요성을 남달리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호텔내의 전종업원은 연중 4회의 정기적인 교육 훈련에는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또 신입사원은 수시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소방훈련은 호텔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민방위 훈련시 월 1회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기적인 교육훈련외에도 봄·가을 두 차례에 걸쳐 특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총 60만원의 상금이 걸려 있는 각부서 대항 소방경진대회는 그 규모면에서나 종업원들의 관심 및 호응도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어느 행사에 견주더라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대단한 행사로 꼽혀지고 있다.

이 소방경진대회에 대한 종업원들의 관심과 호응은 다소 지나칠 정도이다.

대회개최일자가 통지되면 부서별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다.

종업원들은 평소 교육훈련에서 익힌 실력들이 대회를 통해 유감없이 발휘하게 됨으로써 실제의 상황에서 얻는 것과 같은 교육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가지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은 교육과 훈련에는 거의 불참자가 없다는 사실이다. 불참자에 대해 엄한 문책이

‘종업원의 철저한 방화의식과 각 부서간의 긴밀한 업무협조는 롯데의 자랑거리,

따른다는 사실 말고도 한사람 한사람이 자발적으로 화재 예방에 대해 깊은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언제 어디를 막론하고 완벽한 방화시설과 이에 따른 관리, 종업원의 교육훈련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호텔롯데가 모범 방재건물로 정평이 나기까지는 회장을 비롯한 전체 경영진의 높은 관심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구실을 해냈다는 사실을 그냥 지나쳐 버릴 수가 없을 것이다.

회장이하 경영진에서 간혹 작업장을 순시할 때가 있는데 종업원들에게 소화기의 비치장소를 물어보는가 하면 방화구획 등 구체적인 소화방법까지도 확인해 본다는 사실에서 경영진의 관심을 엿볼 수 있다.

호텔 롯데의 방화실무책임자를 지고 있는 방화과장 조명연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회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강조하는 말씀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영 잘못에 의한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화재만은 순간의 방심과 실수를 전혀 용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화재 예방에 우리의 모든 노력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영진의 관심이 높은 탓으로 우리 방화관계자들은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불철주야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의 호텔 롯데를 있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호텔 롯데의 자랑거리는 또 있다. 경영진의 관심과 이해가 많기 때문에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며 종업원들의 철저한 방화의식과 더불어 각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이주 수월하게 잘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방화과장의 얘기를 더 들어보자.

—아무리 시설이 우수하더라도 종업원들의 관심이 없다면, 또 주의를 게을리 한다면 화재는 언제 어느 때고 발생할 것입니다. 게다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곳이기 때

문에 화재위험이 많을 뿐더러 일단 화재가 발생했다 하면 많은 인명피해까지 뒤따르기 때문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것도 애로사항입니다. 다른 건물소유주나 방화관리자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건물 소유주나 경영자가 방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의 전직이 소방관이었던 관계로 모든 분야에 걸쳐 소방업무를 폭넓게 취급해 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처럼 규모가 큰 건물의 방화 관리를 맡고 있다보니 실무에 대한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느낄진대 다른 방화관리 책임자의 고충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대부분의 대형건물이 훌륭한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설비에 못지않게 시설의 관리유지를 잘 해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밖에 종업원들의 방화에 대한 철저한 인식도 빼놓아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사실들이지만 이렇게 당연한 사실들이 항상 화재가 될 수 있다는데서 문제의 소재를 찾아야 할 것 같다.

민간방재기관인 화협에 대하여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 의견을 들어보기도 했다.

—호텔의 방화책임자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83년도에 정기 안전점검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지하층 방화구획에 대한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은 관련법규에 따른 것으로 일단 이해가 되지만 「지하층 방화구획불량」이라고만 지적을 받으니 어디가 어떻게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몰라 이를 개선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때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특수건물이 다 그렇겠지만 화협의 안전 점검은 방화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규정과 원칙에만 이끌리지 말고 화재 사례별로 깊은 연구를 하여 업종에 맞고 현실에 맞는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당국이나 화협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방화과에서 철저한 확인을 한 후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건의를 해서 즉각 시정하고 있습니다.

호텔의 방화관리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어쨌든 어떠한 경우에도 호텔 화재만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선 누구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또한 한번 화재가 났다 하면 막대한 재산은 물론 귀중한 인명의 손실이 따른다는 점에서 호텔 화재는 반드시 미리 막아야 한다는 데도 여러사람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호텔 롯데는 그래서 한번 찾아볼 만한 곳이었다.